

### 드라마 <화정>을 통하여 화정과 도문대작 속, 허균의 죽음은?

#### 드라마 <화정(華政)> 소개

혼돈의 조선시대 정치판의 여러 군상들이 지닌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이에 대항하여 개인적인 원한을 딛고 연대하는 광해와 정명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정명이 인조정권하에서 그 권력과 욕망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는 이야기.

강력한 조선을 꿈꾸었으나 끝내 태생의 한계에 부딪힌 불운한 임금 광해! 가장 고귀한 신분인 공주로 태어났으나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죽은 사람으로 위장한 채 삶을 이어나가야만 했던 여인 정명! 반정을 통해 그토록 그리던 권좌에 오른 후 패도의 길을 걸었던 야심가 인조! 정인의 원수를 주군으로 모신 비극적 사랑의 주인공 홍주원! 사랑을 위해 가문을 버리고 인조를 택한 남자, 킹메이커 강인우! 제 아버지의 손에 죽은 비운의 세자 소현!



형을 지킬 수 없었던, 치열한 권력투쟁 끝에 왕이 된 효종!

뿐인가. 권력투쟁의 한가운데서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이이첨과 김자점, 막후에서 조용히 왕실을 흔들었던 상궁 김개시와 희대의 악녀로 평가받는 인조의 후궁 소용 조씨까지!

본 드라마는 역사 속에 분명한 한 가지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란 大國도, 왕좌의 주인도, 권력자들도 아니다. 세상의 주인은 지금 이 순간 더 정의로운 세상, 더 가치 있는 신념을 위해 불의한 모든 것과 맞서 싸우고 있는 시대의 개인들이라는 사실이다.

진정한 시대와 역사의 주인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비록 더딜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열릴 것임을 믿는다.

### 허균의 죽음과 관련된 형벌

자신의 이름보다 그의 저서 홍길동전이 더 잘 알려진 조선 중기의 문신, 허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매체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있을 법한 이야기>는 바로 그의 죽음과 관련된 형벌 이야기입니다.

허균의 이야기는 MBC 드라마 <화정>과 피키케스트 웹툰 <도문대작>에서 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화정>에서 허균(안내상 분)이 능지처참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능지처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본래 능지처참이란 팔다리와 어깨, 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심장을 지르고 목을 베는 잔혹한 사형 방식을 뜻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죄인을 기둥에 묶어 놓고 포를 뜨듯 살점을 베어내며 천천히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능지처참이 의미하는 방식은 조선에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거열형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능지처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거열형이란 위의 사진에서도 나와 있듯, 죄인의 사지와 머리에 줄을 묶고 수레 등에 연결해 찢어 죽이는 사형의 방식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역모나 패륜 등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MBC 드라마 <화정>속 허균은 능지처참(거열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허균의 죽음을 두고, 역사학자들도 광해군 때 허균이 모반죄로 능지처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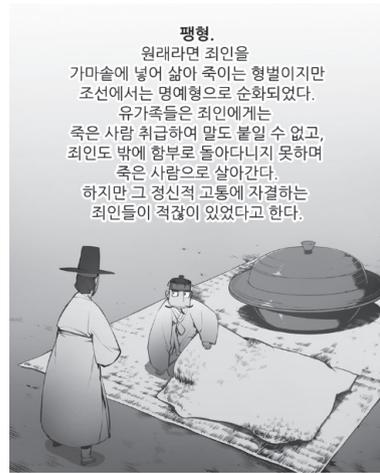
〈피키케스트 피키툰 도문대작〉

### 도문대작

하지만 웹툰 〈도문대작〉에서는 이러한 허균의 죽음을 다르게 처리하였고, 그 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허균이 팽형에 처했다는 것인데요. 본래 팽형이란 고대 형벌 중 하나로, 끓는 물에 사람을 삶아 죽이는 매우 잔혹한 사형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시행된 팽형은 일종의 명예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만 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사망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인들은 물론 가족들도 그를 죽은 사람처럼 대해야 했으며, 말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에 버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빈번히 있었다고 합니다.



〈피키케스트 피키툰 도문대작 4화 中〉

### 변화하는 형벌

오늘 날에는 사라진 형벌인 능지처참과 팽형! 역사 속 인물 허균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 필요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고 변화를 거듭하는 형벌.

나중에는 처벌과 재사회화를 도모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출처/명쾌한 관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